

# 동독 경제의 파산-독일 공산당 논평 번역

니키타안드로포프



1990년 8월 23일 새벽, 3월 18일 새로 선출되어 기독교민주당이 장악한 인민의회는 헌법 23조에 따라 동독이 독일연방기본법의 범위에 가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가입일은 10월 3일이다. 동독의 사회주의 지향적인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정치, 경제, 법적으로는 완전히 발전된 독일연방공화국에 통합되었다.

동독인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크림 인구의 90% 이상이 러시아 가입을 요구하고 있을 때 '합방'을 큰 소리로 외치는 이들의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독일 통일은 25년 전 일이다. 이 사건은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제약받지 않은 자본이 세계를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기에 4분의 1세기는 충분했다. 전쟁, 기아, 빈곤, 난민, 환경 파괴가 지구를 뒤덮고 있다. 세계를 빈부격차로 나눈 비율은 전례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자본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과 이에 종속된 정치권과 언론은 25년 전 멸망한 사회주의를 비방하고 폄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들은 동독이 '독재 국가'이자 '비정상적인 국가'였으며, 무엇보다도 경제는 '비효율적인 부족의 경제, 병들고 빈곤한 경제'였다고 주장한다.

## 동독의 경제에 대한 진실

동독의 경제 발전과정을 판단하려면 동독이 탄생한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과 독일의 분단의 결과는 동독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동독 정부는 천연자원 없이 중공업(에너지, 금속, 화학산업)을 개발해야 했다. 이로 인해 동독에는 생필품 부족이 발생하고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미국의 마셜플랜으로 인해 개발된 서독으로 이주했다. 동독 정부는 독일 전체 배상금의 92%를 부담했다. 역사학자들은 1989년 7,270억 동독마르크라고 추측했고, 서독에 배상금까지 동독이 보상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헬무트 콜은 20억 달러라는 미미한 배상금도 내기를 거절했다. 그는 동독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고, 동독을 통합하고 싶어했다. 서구의 금수 조치는 동독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 경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동독 경제는 서독보다 더 빠르게 발전했다. 1989년 서독의 인구당 국내총생산(GDP)은 1950년의 4.3배, GDR은 6.2배였다. 이에 따라 서독 대비 사회에서의 노동 생산성 격차는 줄어들었다. 1989년 동독이 서독에게 합병될 당시에도 동독(유로화 대비 GDP로 환산)과 서독의 노동생산성은 초창기 65%에서 45%로 줄어들었다.

경제 발전의 결과로 동독은 국제적 비교에서 1인당 1만2,700유로(1인당 2만2,500유로)의 생산성 수준을 달성하였다. 그것은 영국, 이탈리아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으며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을 훨씬 앞섰다.

경제 발전으로 인해 동독은 많은 분야에서 서독에 상응하는 인구당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기계제품과 영양 및 일상용품 소비는 일부 서독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다.

1989년 통일 당시 동독은 낮은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동독은 자본주의 국가에게 199억마르크의 부채가 있었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동독에게 233억 마르크 상당의 부채가 있었다. 서독 정부는 이부채를 나중에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동독은 유동성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89년 동독의 부채는 서독의 부채보다 현저히 낮았다. 인구 1인당 약 1,800유로 정도였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13퍼센트였다. 당시 서독은 이미 인구 1인당 8,100유로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오늘날 국가 부채는 80퍼센트가 넘고 1인당 2만 5천 유로가 넘는다.

IMF와 세계은행의 개입은 오늘날 부채가 많은 나라들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동독정부는 높은 부채수준을 지니지 않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동독은 고도로 발달한 산업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거의 700개의 크고 작은 투자 프로젝트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의 가치는 2,000억 마르크 이상이었고 '병든' 동독 자산의 일부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날 자본 수출과 외국 기업의 주식 취득과는 달리 수출된 공장에서 단 푼의 마르크도 갖지하지 않았다. 그들의 자금은 동독의 공공자산으로 넘어갔고 이후 투자상품에서 이자와 복리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병든" 동독 경제의 이러한 시설도 민간 자본가의 손에 넘어간 것은 서구 기업이 공공 재산을 인수하면서부터였습니다. 동독 경제는 지속적으로 병들고 비생산적이지도 않았고 확실히 파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동독의 공공재산을 인수하면서 이 동독 산업 시설들도 자본주의의 손에 넘어갔다. 동독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비생산적이지 않았고 파산하지도 않았다.

동독 경제는 어떻게 되었나

1989년 11월 13일 한스 모드로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이어받았습니다. 동독의 경제는 당시 붕괴하는 것이 아닌 충분히 문제를 관리할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Schürer, Schalck 같은 학자들은 동독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스 모드로 내각은 1989년 11월과 1990년 1월 사이에 발생한 생산량 감소를 막고 2월에 다시 월 2%의 성장률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10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서부 독일로 이주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는 생필품의 안정적인 수급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도 은행이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대외 무역에서 23억 통화 마르크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독 경제는 정부가 긴축 조치를 취하거나 임금과 연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안정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연금 인상, 아동 수당 인상 및 임금 인상으로 순 현금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상황은 1990년 4월 12일 드 메지에르 내각(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연립정부. 동독의 마지막 정부이기도 하다)에서 바뀌었다. 증가하는 서독 정치 및 경제의 영향력 아래 경제 및 통화 통합이 시행된 후 7월 산업 생산량은 35% 감소했습니다. 8월에는 1989년 수준의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991년 말까지 동독 산업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였으며 이전까지의 전체 산업 생산량 평균의 35%라는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 2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 등록된 실업자는 830,000명에 이르렀다.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피난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동독은 이 경제적 재앙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독의 산업 생산량은 25년이 지나서야 1990년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혜택은 서구 수준의 70%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동부의 인구는 300만 명이나 줄어들었고 고령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통화 동맹과 Treuhand(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은 훌륭한 일을 했다. 동독의 공공 재산은 가능한 한 빨리 서구자본주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동독 전체 공공재산중 85%는 서독의 손에 넘어갔다. 약 6000억 마르크의 국부가 성급한 사유화, 개인 형령 및 범죄를 통해 2,500억 달러의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동독의 총 국부는 훨씬 더 많았다. 동경제학자들은 거의 15억 동독마르크로 추정합니다. 서방 정치인들은 공적 재산을 사적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 동독의 사회주의 사회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되돌리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임을 충분히 인식했다.

오늘날에도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심오한 대답을 하는 것은 이 글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결정된 현상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요점을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실사회주의는 소비, 생산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자본주의를 추월하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환경 파괴, 노동 착취, 개발도상국 착취라는 방법이 있다. 사회주의는 사회, 문화 및 사회 복지,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주택 산업 및 휴가 서비스의 생산적인 영역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며, 자본주의는 이를 소비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맡깁니다. 사회주의는 또한 국제연대를 실천하고 개발도상국을 착취하지 않고 돕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 관리는 자본주의 경제 관리 이외의 다른 기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둘째, 유럽에서 실천된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독단적 해석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는 공산당이 새로운 사회적 도전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종교가 아니라 행동 지침이다.

셋째, 지도부는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참여시키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넷째, 그 결과 인민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과소평가되었으며 당의 주도적 역할(지도와 관료제)에게 희생되었다. 궁극적으로 나의 생각에는 모든 결함이

인간 본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초래했다. 인간은 '선인'의 한 가지로 취급받았는데, 인간 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최고 자리에 있지 못했다.

이것으로부터 오늘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일부 엘리트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결론이 필요하다. 출발점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항상 "필요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이 행성은 그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로 물질적 재화의 소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인류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는 공평한 분배, 만인을 위한 노동, 만인과의 연대, 평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인정 등 다른 사회주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인민에게 전달해야 하고, 자본에 대한 의존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스와과 다른 국가들은 자본과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사적 재산의 사회화를 요구한다.

=====

본인이 번역에 그리 능숙하지 않은지라, 의역과 오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번역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